

미국과 캐나다 연소노년층의  
저비용 소형 주거단지 생활에 관한 연구\*  
: 농촌지역 소도시 외곽을 중심으로

A Study on Lives of the Young Elderly in Low Cost Small Housing  
Communities in America and Canada  
: Focused on Suburban Areas of Small Cities along Rural Counties

한서대 노인복지학과  
교 수 이 인 수\*\*  
Dept. of Elderly Welfare, Han-Seo Univ.  
Professor : Lee, In-Soo

<Abstract>

This study has been performed to explore process of forming low cost small size housing communities and residential lives of the young elderly around small cities along rural counties of America and Canada, and suggest future implications for Korea. In this study, five low cost small housing zones such as cottage and mobile home parks in non-metropolitan counties of California and Ontario State such as Weed, Paradise, Sun City,, Wellington on the Lake, and Trenton were visited and the elderly residents and service experts were interviewed. The senior concentrating housing clusters were formed primarily from influx of both metropolitan and rural residents for the purpose of seeking warmful localities, traffic connections, and business purposes in theme focused production areas. On the other hand, residential lives in the zones are occasionally negatively influenced by unbalanced concentrations of elderly facilities such as nursing stations and funeral homes. For the future of Korean rural elderly policies, suggestions are made as follows: first, integrated forms of urban and rural township need to be settled as attracting places for early retiring people who seek low cost pastoral oriented but culturally activated environment. Second, a model town of mobile housing structures needs to be initiated as a measure of evaluating adaptation process of those movers. Third, a cooperation system among governmental ministries needs to be formed in order to integrate a long term master plan of establishing traditional rural town of independent housing districts. Fourth, productive and active lifestyles need to be maintained for government lead retirement rural villages by limiting expansion of nursing related facilities around the independent areas. Fifth, visiting welfare service programs and volunteer groups need to be further developed for the housing area especially in winter time, when social integration and emotional comforts are extremely limited.

▲주요어(Key Words) : 저비용 소형주택(low cost small house), 이동주택단지(mobile home complex), 독립생활구역(independent living area), 특별기획프로그램(specially planned program), 테마생산활동(theme productive activities)

\* 2009년도 한서대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한 연구성과물임

\*\* 주 저 자 : 이인수 (E-mail : lee1252@hanseo.ac.kr)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 사회보장제도는 65세 이후를 노인으로 규정하여 경로우대나 노령수당 및 주거보장과 같은 복지혜택의 시점으로 명시하고 있지만(보건복지가족부, 2009), 그 이전 50대 후반 - 60대 초반 역시 본격적인 노년을 맞이할 준비기간임과 동시에 사회경제적 부담이 집중되는 매우 힘든 시기다. 그리고 노동법 기준으로는 아직 생산연령층이긴 하지만, 자녀교육과 결혼을 지원하느라 재정자원이 고갈되고 은퇴를 맞이하여 사회적 역할과 정서교류가 크게 위축되며 신체능력저하와 더불어 노부부만 남은 빈 등지에서 정서적 상실감이 짙어지기 시작하는 등 노년기의 여러 가지 문제가 시작하는 단계로 인식되어, 이른바 연소노년(年少老: young elderly)으로 분류되기도 한다(Atchley, 1988; 장인협·최성재, 2004). 이 시기에는 건강관리, 새로운 인간관계 형성, 무료함을 달래기 위한 여가활동 등을 위해 많은 비용이 소요되지만 새로운 소득원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노인복지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시기는 되지 않고 스스로 일상생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활동도 해야 하는 연소노년기의 힘든 상황에 대처하는 방안의 하나로서 주거지 이동의 필요성이 절박한 현실로 다가온다. 농촌에서 살아온 경우, 신체기능저하가 진행되고 새로운 기술에의 적응이 힘들어 농사일을 감당하기 어려워지면서 건강관리와 안전한 주거환경, 그리고 인간다운 문화생활을 위해 도시화된 지역으로 이사 가야 하는 문제에 대해 고민해야 하며(농림부, 2006), 도시에서 살아온 경우, 소득과 사회적 역할이 크게 줄면서 살아온 집을 처분하거나 세놓아서 생긴 수익으로 살아가기 위해 좀 더 저렴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곳으로 이사 가는 것을 고려하게 된다(AARP, 2006). 우선 농촌지역에 살아온 중·고령자들을 살펴보면, 농촌 인구는 한국 전체인구의 8%정도를 차지하고 있지만 65세 이상의 농촌 노인인구는 전체 농가인구의 18.7%를 차지하고 있는 바, 저출산과 노인건강향상이라는 일반적 현상외에도 젊은 인구층의 離農向都로 인해 산업기반이나 문화근린 조건이 낙후된 농촌지역은 독립적인 생활유지가 어려운 노년층만 남아 열악한 생활환경과 사회적 고립에 노출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농촌지역에 제공되는 복지서비스는 인근 중소도시 복지기관이나 지역사회 봉사단체 등에서 제공되는 식사 및 생필품 제공, 말벗봉사, 이동목욕, 주거환경관리, 가정방문간호, 재가방문 요양서비스 등 장기요양보험 대상자나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최저생활보호의 범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보건복지가족부, 2009). 따라서 연소노년층 대다수는 노인들이 대부분인 여건속에서 노인으로서의 복지서비스의 사각지

대에 있으면서 문화혜택과 여가를 즐기지 못하는 물론 다양한 식사와 적절한 보건관리를 받지 못하고 우울과 신체기능 약화 위험이 높아 매우 열악한 생활여건에 처해 있는 실정이다(양순미 등, 2007).

농촌에서 노년기를 향해 다가서고 있는 사람들이 인간다운 삶의 질 추구를 위해 취할 수 있는 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서 가까운 읍이나 소도시를 자주 왕래하며 동료들과 친교활동을 하고 여가와 문화, 의료서비스 기회를 누리는 방법이며 둘째는 그러한 가까운 소도시구역으로 이주하여 중·고령자 단독으로 혹은 자녀와 합류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다(이찬영, 2007). 그러나 인근 도시를 자주 왕래하는 것은 교통수단이나 함께 할 동료가 없다는 점에서 또 다른 어려움을 낳으며, 또한 도시로의 이주정착은 농촌생활을 청산하고 도시에 주거공간을 마련하며 새로운 생활에 적응해야 하는 재정적 부담과 생활패턴의 큰 변화를 요하기에(김희우, 2000), 두가지 다 실현하기 매우 어려운 방안이다.

대도시에서 살아온 경우, 자녀를 출가시키고 은퇴 후 적절한 사회생활과 소득도 크게 감소한 상태에서 이제까지 살아온 큰 주거공간에서 생활하는 것은 집 관리나 생활비조달 면에서 매우 힘든 일이기에, 집을 처분하거나 세놓거나 혹은 역저당(reverse mortgage)에서 생긴 수익 등을 활용하여 좀 더 저렴하게 생활할 수 있는 지역으로 이사 갈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한다(조추용, 2005). 그리고 그러한 새로운 주거지 이동의 적절한 장소는 전원생활을 하면서 정서적 안정도 누리고 저렴한 생활비로 충분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농촌지역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농업기술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문화기반시설이 열악한 농촌으로 이사 가서 새로운 생활에 적응한다는 것도 매우 힘든 일이다(농림부, 2006).

위에 언급된 상반된 두 집단의 욕구를 모두 반영한 대처방안, 즉 농촌노인들의 건강관리와 문화생활 욕구, 그리고 대도시에서 살아온 노인의 전원생활과 저렴한 생활비 욕구를 함께 충족시킬만한 적절한 생존전략을 구상해 보자면, 농촌지역에서 가까운 읍이나 소도시 교외지역에 이주하여 최소비용으로 생활하는 절충된 새로운 방법의 노인주거문화를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절충방안을 실현시키고 있는 선진국 사례를 참고로 한국의 미래를 그려 볼 수 있을 것이다. 선진국 사례를 참고해 보자면, 아직 독립성이 남아있는 연소노인 기간 동안 도시와 농촌의 중간지점에 복지서비스와 노년층 문화편익 프로그램이 최소한으로 갖추어진 지역에서 몇 년 동안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하는 것이야말로 대도시 혹은 농촌에서 다른 곳으로 주거지를 이동하여 보다 성공적인 초기노년기를 보내는 생존전략이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농촌지역에 인접한 소도시 외곽 교통의 요지 생태공원이나 관광명소에 개발된 모빌홈(mobile home), 여가차량 공원(RVP: Recreational Vehicle Park),

그리고 오두막 단지(Cottage Village)는 저렴한 비용의 주거단지로서, 대도시나 농촌에서 이사 온 50~60대 중·고령층이 주택구입가격이나 월세가 대도시의 1/3 수준인 곳에서 특정한 테마관광지에서의 농산물 가공활동을 통해 생활비를 조달함은 물론 다양한 이벤트를 누리며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준비기간을 가질 수 있다(Canadian Association of Retires Persons, 2008). 미국 캘리포니아주 경우, 과거 목재가공산업이 번성하다가 중지된 산악지역 교통의 요지인 소도시 외곽에서, 목재회사 직원들 숙소로 쓰이던 옛가옥에 인근 부락이나 대도시로부터 이사하여 매우 저렴한 조건으로 입주하여 생활하면서 인근 도시들을 오가며 다양한 부업활동을 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하면서 중·고령기를 보내는 집합주거단지가 있다(Weed City Chamber of Commerce, 2007). 또한 플로리다주 대규모 실버타운 인근에 지자체에서 설립한 오두막 목조주택 단지에서 생활하며 실버타운에서 시간제 일과 봉사활동을 하며 활력적인 연소노년기를 최소 비용으로 보내는 저소득층 밀집부락도 있다(Suncity Center, 2005). 이러한 사례를 고려해 볼 때, 획기적인 주거환경 변화로의 적용을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성공적인 노후생활의 일부분을 영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러한 경우가 보고된 바 없지만, 노년기를 준비하는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에게 선진국 사례에 나타난 다양한 가능성을 고찰하여 이를 토대로 자신에게 적합한 곳으로의 주거지 이동을 통하여 최소비용으로 성공적 노후준비를 할 비전을 제시하는 것도 고령화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나라 미래를 위한 주요 과제라 할 것이다. 특히 대도시나 농촌 등 출신지역을 막론하고 누구나 이사 와서 새로운 집합주거문화를 형성하고 조화롭게 살아가는 사례를 조명하는 것은, 사회계층과 빈부의 차이가 양극화된 한국에서 중·고령기 다문화공동체의 가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가족복지 실천이 될 것이다.

## 2.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미국과 캐나다 등 선진국을 방문하여, 대도시, 농촌, 산간부락 輿地 등 다양한 장소로부터 이주한 연소노년기 사람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활동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공동체 사례를 관련 전문가와 거주민과의 직접면담에 의해 조사해 보고 한국의 미래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며,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첫째, 미국과 캐나다의 농촌지역 소도시 외곽에 형성된 저비용 소형 주거단지에 대도시, 농촌, 산악지대 등에서 이주하여 정착한 50대후반~60대초반 연소노년층과의 직접면담에 의해 이주해 오게 된 구체적인 동기를 조사함.

둘째, 이러한 연소노년기 공동체를 위해 인근 지자체나 봉사단체 등에서 제공하고 있는 노인복지서비스, 활동프로그램,

자원봉사기회, 의료기관, 그리고 부업기회 등 지역사회환경의 장단점에 대해 현지 노인복지관련 전문가, 지역주민, 그리고 입주노년과의 직접 면담을 통해 고찰함.

셋째, 이러한 고찰을 통해 향후 한국 농촌지역 인근 소도시와 읍지역에서 전개해야 할 효과적인 연소노년층 저비용 소형 주거단지 조성 및 복지서비스 프로그램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함.

## II. 선행연구 고찰

### 1. 노년기 주거지 이동

목표성취와 자녀양육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해오다가 자녀의 출가, 은퇴로 인한 소득 감소, 배우자사망, 사회적 역할 상실, 건강악화 등 다양한 생애사건을 접하는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상황을 개선시키는 보편적인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주거지 이동이다. 최근 미국에서 주거지 이동을 경험한 60~87세 남녀 노인 3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질적 연구에 의하면(Sergeant and Ekerdt., 2008), 노년기 주거지 이동은 건강악화로 인한 주거관리기능 저하, 특별한 믿음과 태도, 주거환경에의 부적응, 그리고 사회경제적 압력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 패러다임으로 작용하여 초래하는 결과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대도시 큰 주택에 홀로 거주하던 여성노인은 쓰레기통을 큰길가에 쓰레기 수거 차량에 전달하는 일상적인 일을 하다가 어느 날 통 무게를 이기지 못하여 트럭 앞에서 쓰러져 뒹굴면서 이웃과 수거차량 기사의 도움을 받은 사건을 계기로, 자신의 건강이 나빠져 큰 집을 관리할 수 없게 되었다고 믿고 그 이후 계속 경험하는 그런 주변 도움이 사회적 압력으로 느껴지면서 집의 규모를 줄이고 안전한 소도시로 이사 가게 되었다고 조사되었다. 또한 이러한 주거지 이동의 또다른 주요 배경으로 대도시에서 살 경우 주거비용이 너무 높고 방범관리와 수리가 어려워 소도시로 이주하는 경우를 예시하는 연구들도 있다(Lawton, 1982; Chevan, 1995).

은퇴와 자녀출가를 경험하는 50대 후반기에 있어 주거지 이동은 일상화된 적응과정이라고 주장하는 연구도 있는 바(Burkhauser et al., 1995), 미국인은 55세에서 64세까지 10년 동안 39%가 한번 이상의 주거지 이동을 경험한다고 하였다. 이 시기의 주거지 이동은 주로 살아온 집을 처분하거나 세를 놓아서 생긴 차액으로 생활비용을 충당하며 노후생활에 적합한 소도시에서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에 적응하기 위함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노년기 주거지 이동은 매우 일반화된 현상인데 노년기 중에서도 50대후반~60대 초반인 연소노년기는 보호시설로의 입소를 위한 주거지 이동은 거의 없고 경제적

이유나 집 관리상의 편의, 혹은 새로운 활동 시작을 통한 기분 전환이 가장 큰 이유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캐나다 은퇴자단체 경우, 터론토 같은 대도시와 비교하여 월세와 관리비 등 총 주거비용이 1/3 이하이며 부업기회도 많다는 점을 들어 55세~64세 연령층으로 하여금 대도시에서 100km정도 떨어진 농촌지역(rural county) 인근에 위치한 소도시로의 일시적 주거지 이동을 권장하고 있다(Canadian Association of Retires Persons, 2008).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최근 연구에서도 노년기 주거지 이동 욕구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중소도시와 농촌에 거주하는 55~70세 노인중 64%는 저렴한 생활비와 새로운 노후생활에 대한 도전, 혹은 고립된 농촌생활에서 벗어난 보다 안전한 곳에서의 새출발을 위해 이사하고 싶어 하는 바(신동원, 2006), 이 연구를 토대로 도시에서 농촌으로의 이주 혹은 그 반대의 경우를 모두 합하여 보면 독립생활이 가능한 저연령 노년층 2/3 정도는 농촌에서 가깝고 친환경조건과 문화기반이 갖추어진 소도시로 이사하여 새로운 생활을 시작해 보고 싶은 욕구를 지녔다고 볼 수 있다.

위에 소개한 국내외 연구를 볼 때, 노년기 주거지 이동은 매우 일상화된 보편타당한 욕구이며 노년층 중에서도 새로운 활동이 가능한 50대후반~60대초반의 이른바 연소노년층은 대도시로부터 농촌지역 혹은 농촌으로부터 소도시지역으로 이주하여 다양한 활동을 시도해 보길 희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기에 그러한 두 가지 상반된 계층의 욕구에 대한 절충방안으로서 농촌지역 인근에 자리 잡은 소도시 외곽에 위치한 저렴한 주거단지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 연구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 2. 소도시 외곽의 저비용 소형 주거단지

노년기 주거지 이동은 삶의 적응과정에서 필연적인 일이며 경제문제와 문화생활 및 다양한 활동욕구 성취가 주요 목표다. 요양보호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고 독립적인 생활유지가 가능한 저연령 노년기 경우, 대도시 혹은 농촌 오지에 거주해온 집단의 주거지 변경 동기를 다 함께 충족시킬 가능성이 많은 주거공간으로서 농촌지역 인근에 위치한 소도시 외곽지역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현대화된 고급 건축물이 아니라도 적절한 주거설비와 부업활동, 사회적 교류, 그리고 고령층을 배려한 적절한 사회적 지지가 제공된다면 요양보호를 받거나 자녀에게 의존하기 전까지의 과도기 생활을 계획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러한 주거지는 또래집단의 집합문화가 더욱 매력적이 될 수 있다. 노년층은 다른 연령층보다도 더욱 군집을 형성하며 정서교류를 가지려는 성향이 강하기에, 여가활동이나 사회적 교류도 또래집단과의 군집에 의한 공동생활지역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다. 일정한 연령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은 비슷한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성장해 왔기 때문에 비슷한 태도, 가치, 전망을 가지게 되는데 노년기는 가지고 있는 공통의 특성과 사회문화적 요인 등에 의해 또래집단이 형성되며 그 집단 내부에서의 빈번한 상호작용을 통해 노년층 특유의 하위문화가 형성된다(이인수·김인종, 1999). 노년층, 그중에서도 비교적 활동의욕이 강한 연소노년층에게 같은 연령층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의 확보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더욱 절실한 문제일 수 있고, 동질 집단 사이의 친교를 가능하게 하는 공간은 공원, 문화근린시설, 복지서비스, 쇼펜센터 등이 잘 갖추어지고 젊은 연령층도 자유롭게 오가며 함께 어울려 사회적 통합을 이룰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이병록, 2005).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킨 사례로서 선진국 경우, 미국 캘리포니아주 록키산맥에 위치한 소도시, 플로리다주 휴양 소도시 외곽, 그리고 캐나다 온타리오 주 호숫가 포도주 생산단지(Winery)에 인접한 소도시 교외지역은 인구 3~5만명이하의 소도시 외곽에 관광특구, 名山, 유명인의 生家, 거대한 고목 등이 있어 북고풍의 향수를 그리워하는 노인들이 많이 모이면서도 젊은 연령층과의 교류와 일자리 기회도 많다. 그런 이유로 인접한 산악지역이나 농촌 오지, 혹은 San Francisco, Tampa, Toronto 등 대도시에 거주해오던 중·고령층이 이주 정착하여 새로운 활동과 정서교류, 문화생활의 욕구를 잘 충족시킨다. 특히 교통정리, 주차안내, 관광안내, 지역 역사에 대한 설명, 포도주나 치즈 판매에 참여하며 활기찬 노후를 보낸다. 그리고 그러한 소도시 인근 저비용 소형주거공간은 대부분 대량생산 소형 주택(manufactured small house)으로서 오두막(cottage), 헛간집(barn house), 이동주택(mobile home), 여가차량(Recreational Vehicle: RV), 심지어는 캠핑장에 설치하는 소형 조립주택(campground cottage) 등이 있다. 이러한 형태의 주거공간은 우선 비용이 매우 저렴하고 채류 계약조건이 일반주택에 비해 1개월 단위부터 시작할 수 있어 융통성이 많다는 점 등이 장점인데, 대형 트럭이 운반하고 대규모 단지를 조성하고 단층으로만 설치해야 하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토지경제효율이 낮으면서도 일정수준의 규모가 필수적이기에 인구밀도가 너무 낮은 농촌이나 밀집된 도시 중심지는 설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고속도로와 도시 진입로가 교차되는 외곽지역에 공원형태로 조성된다. 그리고 그런 지역은 학교나 어린이 보호시설은 물론 의료시설이 적기에 사실상 자녀교육과 무관하며 스스로 운전할 수 있는 건강한 연령계층이 주류를 이루기에, 결국 50~60대 중·고령층 사람들의 집합주거단지로 보편화되고 있다(Elder Home Finders, 2009; Senior Outlook, 2009).

그리고 이러한 저비용 소형 주거단지가 있는 소도시 외곽지역은 대도시에 비해 교통량도 적고 범죄발생이 낮은 반면 중·고령층의 유입으로 인해 일정기간이 흐른 후 상대적으로 노인 인구비율이 높아지면서 노인을 배려한 다양한 사회적 조건이 형성된다. Weed市 경우, 록키산맥 산자락에 있는 Shasta산은

해발 3000미터 정도로서 삼각뿔 모양을 하며 봉우리에 만년설이 있고 산 중턱에 여러 오두막과 동굴과 온천이 있는데, 이러한 Shasta산 주변에서 생활하면서 그 산을 오르고 산속의 노천 온천을 즐기고 산중 오두막에서 기도하며 수양하는 것을 삶의 큰 보람으로 인식하는 노인들이 많아, 특히 노인생활시설에 있는 건강한 노인들 경우 서틀버스로 주기적으로 Shasta산을 방문하여 산행과 삼림욕과 온천욕을 즐기고 산중턱 오두막에서 기도하는 생활이 주요 일과 중 하나로 정착되었다. 그리고 노인들이 자연스럽게 밀집된 지역이기에 우선 고령인구비율이 특이하게 높다는 점을 감안한 지자체의 특별배려가 큰 장점이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노인인구비율이 매우 높기에 여러 가지 법 적용에 있어서도 융통성과 차별성을 부여하여, 노인들이 낭만적인 전원생활과 사교활동, 그리고 지역사회 주민들과의 적절한 통합생활을 즐기도록 배려한다. 고령 운전자들이 많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노인들도 많다는 전제하에 교통경찰관과 지역사회 봉사자들이 공동으로 교통안내를 집중적으로 하고, 노인생활시설 입주자들과 지역사회 주민과 어울려 바자회나 파티를 할 때 경찰관들이 사복을 입고 봉사활동과 질서유지를 동시에 한다든가, 시설주변에 가로등과 안내표시판 등 편의 안내시설을 집중적으로 배려하여 설치하고 관리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Weed City Chamber of Commerce, 2007).

캐나다 Ontario 주 Clarkson市 경우. 호숫가 산책로가 잘 구비되어 있고 그 산책로를 따라 관광명소인 포도주 단지 와 치즈공장이 있어 이곳을 찾는 농촌노인들이 인근주민들과 함께 운동도 즐기고 포도주 단지나 치즈공장에서 자신이 가진 경험을 활용하여 판매사원이나 생산과정 설명요원으로 일하며 일자리를 활용하고 있다(Ontario Association of Active Adult Life Style Retirement Community, 2006). 미국 캘리포니아주 록키산맥 부근의 소도시 Napa와 Paradise에는 부근 산간 부락(village)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방문하여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복지 및 여가활동 서비스를 마련하고 이러한 프로그램 관리를 위해 지역사회 교육기관과 복지관련 지자체 기관이 공동으로 서비스관리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인근 오지 마을을 관할하는 인구 10만 미만 소도시에 대규모 노인여가센터(Senior Citizen Center), 은퇴군인 활동센터(Legion Office), 소규모 임대형 농장(Allotment Garden), 재가서비스 연계 관리센터(Home Service Delivery Passage Center), 원예교실(Horticulture Club), 그리고 포도주생산 참여프로그램(Winery Share Program) 등이 있다. 그러한 프로그램들은 그 도시에 거주하는 노년층 뿐 아니라 인근 산악지대 부락 노인들로 하여금 car pool이나 통근용 소형버사이용을 통해 소도시를 방문하여 농장을 운영하고 포도주 생산 및 판매 활동에 참여하고 봉사활동을 하고 또한 자신의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소규모 전통식품가공 산업(예: 소형 치즈공장이나 잼공장)에 지분투자를 하게하며 컴퓨터교실이용, 그리고 자신에게 필요한 적절한 방문간호

서비스 연계 상담 등을 받도록 적극 권장하고 안내서비스를 제공한다(Oak-Knoll Retirement Village, 2006). 이러한 선진국 사례를 고찰해 볼 때, 살아온 지역에 상관없이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결핍된 사회교류와 문화활동, 더 나아가 생산활동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면, 농촌지역에 인접한 소도시외곽 교외로서 전원적 환경과 도시문화 편의의 장점을 함께 구비한 장소에 위치한 다양한 형태의 주거공간도 좋은 선택 안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 III. 연구방법

#### 1. 조사대상 및 시기

본 연구에서는 2007년 9월부터 2009년 2월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와 플로리다 주, 그리고 캐나다 온타리오 주 농촌지역 인근 소도시 외곽에 있는 저비용 소형 주거단지 5개를 방문하여 그곳에서 1년 이상 거주한 55세~64세 입주자, 그리고 시 안내센터 직원이나 자원봉사자 및 주거단지 관리자와 면담하였다. 농촌지역 소도시 기준은 주 은퇴자협회(American Association of Retired Persons: AARP, 2006; Canadian Association of Retired Persons: CARP, 2006), 그리고 노후를 보내는 장소(Aging in Place)에 관해 안내하는 노인단체(Senior Resource, 2006)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대도시를 탈출하여 농촌과 전원 지역(farm and pastoral county)에 살면서도 30분 이내에 문화생활과 쇼핑을 즐기기 위해 찾아갈 수 있는 낭만적인 작은 도시 ("..enjoying a pastoral life getting away from stressful metropolitan area, you can also touch a lovely small town or city within 30 minutes drive..")』라는 내용의 문구로 인용된 곳으로 정하였다. 그리고 소도시를 방문하여 안내센터 직원이나 자원봉사자와의 면담을 통해 도시 외곽 2차선 도로변에 위치한 저렴한 비용의 소형 주거단지를 소개받아 그 단지를 방문하여 관리사무소 직원 및 입주자들과 휴게실이나 단지내 공원에서 면담하였다. 조사대상자는 50대 후반~60대 초반의 입주자 부부 5쌍, 50대 후반과 60대 초반 독신남 입주자 각각 1명, 주거단지 관리사무실에서 임대계약과 생활관리를 담당하는 Office Manager 혹은 House Supervisor 직함의 직원 5명, 그리고 환경위생관리와 고령자 외출동행을 담당하는 자원봉사자 2명 등 총 19명이었다(<표 1> 참조). 조사대상 소도시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Weed와 Paradise, 플로리다주 Sun City, 캐나다 온타리오주 Wellington on the Lake와 Trenton 이었으며 모두 등록된 거주자 인구가 5만 이하였으며 관할 시청에서 선정한 노인밀집구역(Senior Zone)이 있어 차량속도 시속 15km이내, 경찰관 상시 대기 등 노인보호와 관련된 복지서비스 시스템이 가동 중이었다. 이러한 소도시 진입 고속도로 출구 외곽 2차선 도로변에 위치한 주거



<표 1> 조사대상 지역과 면담자 특성

지역	단지명	소도시와 단지 개요 및 조사대상자
	Weed市 옛 목조주택과 이동주택 혼합 단지 <sup>1)</sup>	<p>Weed市는 2007년 1월 현재 전체인구 3천명의 소규모 도시로서 록키산맥속에 고립된 해발 1천미터 고도의 농촌형 소도시임. 공항이 있는 Redding시로부터 100km정도 떨어져 있으며 1960년대까지는 록키산맥에서 생산된 대형 목재와 암석을 1차가공하는 공장지대였으나 목재 및 석가공 산업이 위축되면서 젊은 층은 다른 도시로 이주하고 목재가공 공장 사태를 지럼한 일반주택으로 판매하거나 임대하고 주변에 차량운반 이동가옥도 함께 모여 혼합된 단지가 조성되어 생활비가 매우 저렴해 주변 산간부락 중년층과 노년층이 이주하여 생활하면서 점진적으로 노인밀집구역이 됨. 50대 후반에 이곳으로 이주하여 다양한 파트타임 부업활동을 하며 3년간 생활해온 60대 초반 부부와 단지 입주계약 및 설비관리를 담당하는 40대 남자 House Supervisor 1명을 면담함. 또한 市 상공회의소(Chamber of Commerce)에 근무하는 50대 후반 여성과 면담하였는바 Weed의 노인복지관련 서비스에 관한 자료를 많이 보유하고 지역역사에 대해 잘 알고 있음.</p>
		
미국 캘리포니아 및 플로리다 州	Paradise Town Wood Cabin 단지 <sup>2)</sup>	<p>Paradise 마을은 캘리포니아 州 중부 지역 산악에 위치한 작은 도시로서 2008년 1월 현재 인구 2만5천명 정도임. 록키산맥 입구에 낙원계곡(Paradise Valley)이라 불리는 길이 50km정도의 거대한 계곡이 시작하는 곳에 위치한 관광 명소이며 낙원계곡과 인접하여 Paradise 라는 명칭이 주어짐. 이곳이 낙원이라는 인식으로 인근 노인들이 유입되어 노인 밀집 구역으로 정해짐. 50대초반에 소형 목조 오두막단지에 이사 와서 인근 도시를 오가며 부업활동을 하며 10년간 생활한 60대 초반 부부, 그리고 오두막 단지를 소유한 부동산 회사에서 파견된 50대 여성의 임대 및 주거생활 담당책임자(sales &amp; housing manager)와 면담함.</p>
		
	플로리다州 Sun City 레저 및 노인휴양단지 부설 오두막 단지	<p>Sun City는 플로리다州 중북부에 위치하고 2007년 1월 현재 인구 18,000명의 소도시임. 공항이 있는 Tampa로부터 100 km 거리에 있고 주변에 오렌지 농장과 골프장들이 많은 전형적 전원지역임. 1961년에 Del Webb社가 개발한 대규모 노인촌락 및 골프장이었고 그 시설과 골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위한 오두막 단지가 1970년대에 지어졌음. 그리고 이 오두막단지 일부는 시에서 지원하여 저소득층 65세이상 노인 임대주택으로도 이용됨. 부근 대도시에서 사업에 실패한 후 50대 후반에 이주하여 오렌지 농장과 노인촌락에서 시간제로 일하는 60대 초반 부부, 그리고 단지내 저소득 층 연금, 의료보장, 생활용품 구입 쿠폰(Food Stamps) 지원 등 복지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계약직 市 남자 직원 1명이 면담조사에 응함.</p>
		

1) Weed City Chamber of Commerce(2003-2006) Annual Reports and Bulletin Series 2003-2006을 요약정리함.

2) Oak-Knoll Retirement Village(2006). Guides for Residence Life in Oak-Knoll 요약정리

<표 1> 계속

지역	단지명	소도시와 단지 개요 및 조사대상자	
캐나다 온타리오 州	Wellington On the Lake Mobile Cottage	<p>Ontario호숫가에 위치한 인구 1,500명의 작은 마을 Wellington on the Lake Village에 1980년대 말에 설립되어 55세-74세 건강한 중고령자 500여명이 거주하는 이동식 오두막 단지를 방문조사함. 부근에 포도주 생산단지가 국도를 따라 이어져 포도주 맛보기 길(Wine Taste Trail)이라는 테마 생산 및 관광단지가 조성되어 있고 그곳에서 일하는 중년층과 고령층이 모여 사는 단지로 활용됨. 이곳에 거주하는 50대 후반 부부와 60대 초반 부부, 그리고 빌라단지 영업책임자겸 관리인(Sales Director)인 60대 후반 남성 1명이 면담조사에 응함.</p>	
캐나다 온타리오 州	Trenton RV Park	<p>Ontario 호숫가에 위치한 인구 5만명 규모의 Trenton시에서 10km 정도 떨어진 私設 여가차량 공원 주거구역(Trenton RV Park)을 방문조사함. 50대에 이곳에 이사 와서 3년 이상 살아오고 있는 50대 후반과 60대초반 건강한 남자노인 2명, RV Park 소유자 가족으로서 주거단지 비용징수를 관리하고 Park에서 운영하는 레저 부대시설 호수공원 관리도 겸하는 30대 여성, 그리고 Trenton市 자원봉사센터에서 파견 나와 조경 및 고령입주가 외출동행을 담당한 50대 여성 자원봉사가 1명이 면담에 응하였으며 주거구역 호숫가 공원에서 여러 번 만나 자유로운 대화형식으로 면담함.</p>	

단지를 방문하였는데, 연구목적에 부합되도록 최소비용으로 생활하는 소형 주거단지를 정하였는바, ① 1950년대에 제재소 직원 숙소로 지어진 후 산업이 퇴보하면서 55세이상 고령자에게 200~500달러의 월세를 받는 목조주택과 여가차량 이동주택(Recreational Vehicle Mobile Home) 혼합단지, ② 부부용 소형 나무집(wood cabin), ③ 유료노인휴양단지와 골프장에서 임시 근로자나 방문자를 위해 지은 오두막(cottage), ④ 테마 휴양 및 생산단지에 인접한 차량이동식 오두막(mobile cottage), 그리고 ⑤ 콘테이너 및 여가차량 혼합 주택 공원(Recreational Vehicle Park: RV Park) 이었다.

2. 접근방법 및 조사항목

본 연구에서는 한국 4년제 대학 사회복지 관련분야 교수

3) 캐나다 온타리오 활동적 성인 은퇴휴양시설 협회(Association of Ontario Active Adult Life Style Retirement Community) 안내책자에 소개된 이웃도시 소개자료 요약정리

1명과 박사과정생 2명 등 총 3명이 영어로 면담을 하고 시 도서실에 보관된 각종 연보통계자료를 참고했으며 조사내용 중 직접면담은 비디오로 녹화한 뒤 영역별로 분류하여 한글로 재정리하였다. 사전에 시 안내센터의 소개로 55~64세 거주자, 관리직원, 자원봉사자를 만나 안면이 익숙해진 상태에서 차후 다시 방문하여 면접조사를 실시하였으며, Pynoos & Regnier (2000)의 연구와 전창미·박희진(2004)의 연구에서 노후 주거 생활에 중요한 지역사회 조건으로 제시된 항목을 사전에 지역 봉사자나 안내센터 직원과의 의견교환을 통해 조정하여 조사 항목을 구성하였다. 즉, 조사항목은 이 주거단지에 거주하게 된 중요한 동기, 생활에 도움이 되는 조건, 그리고 단점으로서 ① 기후, ② 문화근린시설(예: 박물관, 도서관, 미술관 등) 및 대중교통, ③ 경제활동 가능성, ④ 의료기관과의 근접성, ⑤ 가족과 친지의 방문 혹은 동행 가능성, ⑥ 여가를 즐길만한 조건(예: 골프장, 가족 체육시설 등), ⑦ 생활편익시설(상점, 은행, 우체국 등), 그리고 ⑧ 복지시설 및 서비스 등 8개 영역에 걸쳐 구성되었다. 조사는 위에 소개한 항목을 중심으로 질적조사가

이루어 졌는데, 조사대상 구역에 연소노년기에 이주하여 생활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와 생활의 장점, 그리고 생활에 필요하지만 갖추어 지지 않아서 불편한 단점에 대해 고정된 설문지 양식 없이 자연스런 대화를 통해 질문하였다. 따라서 질문이 확일적으로 표준화된 문장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대략 "귀하가 이곳에 입주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 그리고 살면서 느끼는 좋은 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위 8개 영역중에서 생각하여 구체적으로 그 이유를 설명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위 영역중 이곳에 충분히 갖추어 지지 않아서 불편한 것(혹은 노인이 아닌 전문가 경우 이곳에서 생활하는 노인들에게 불편하다고 느끼는 것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라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그리고 특히 직원일 경우 답변에 있어 구체적인 시기와 지자체 정책내용을 포함하는 내용은 근거자료(예:시설에 보관중인 과거 공문 사본 등)를 제시하도록 부탁하여 확인하고 그 확인내용을 조사대상(<표 1> 참조) 및 결과 부분에서 추가로 기술하였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자유로운 구술을 정리한 질적 연구로 정리되었으며, 진술중 비슷한 영역의 동기나 장단점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것들을 범주화하여 각 범주내 유사한 내용들은 그중 가장 자세하고 이해하기 쉬운 것을 추려서 표준어 문장으로 번역하였다. 특히, 노인거주자 경우 질문과 무관한 내용이 혼합되고 질문순서(동기, 장점, 단점)와 다른 순서로 장황하게 답한 경우가 많았다. 이 경우 진술을 연구문제와 부합하는 순서에 따라 재구성하고 또한 그 재구성한 내용을 영역별로 분류하여 정리하는 작업이 추가로 이루어지고 답변들을 광범위하게 분류하고 각 광범위 영역을 다시 2~3개씩의 중간규모영역으로 세분하여 그 세분 영역내에 인용사례들을 정리하였다.

#### IV. 이주동기와 긍정적 기능

본 연구에서의 면접은 고정된 확일적인 질문이 아니라 주어진 주요 영역문항을 중심으로 그와 유사한 범주의 내용도 좋다는 취지의 비교적 융통성 있는 질적조사였다. 그러므로 주요 이주 동기와 이주 후에 경험한 장점이 혼합되고 특히 면접에서 제시한 『노후 주거생활에 중요한 지역사회 조건 영역』에 대해 개개 항목별로 명확한 구분을 하지 않고 몇가지 영역을 혼합하거나 한 개 영역중 일부분과 또다른 내용을 혼합하여 진술한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대도시에서 살다가 특별한 문제가 생겨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동기로서의 이주, 그리고 그러한 이주목적이 달성되면서 느끼는 긍정적 측면이 함께 설명되고 부업활동과 지역사회 기관으로부터의 복지혜택을 받는 장점이 혼합되어 나타났다. 그리고 『가족과 친지의 방문 혹은 동행 가능성』이라는 영역중 일부는 『새로운 친지가 생겨 검소하게 생활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도와주면서 동행한다』는 다소 변형된

내용이 되어 장점으로 나타나고, 또다른 일부는 『가족으로부터 잊혀지고 고립된다』는 내용의 단점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렇듯 다양하게 혼합되고 변형된 내용을 정리해 볼 때, 주요 이주 동기는 선행연구에서 고찰된 전원생활 동경이나 기분전환 등과 관련된 내용은 없고 매우 절박한 상황에서 혹은 일할 기회를 구하기 위한 목적등 구체적인 이유가 나타나고 있다. 이주 동기는 크게 나누어 ① 대도시에 살다가 50대에 이르러 감당하기 힘든 큰 사건이 발생하고 경제적 어려움이 생겨 갑자기 이주해온 경우, ② 농촌지역에서 축산 및 영농 등 생산활동을 왕성하게 하다가 활동능력이 점진적으로 감소하면서 잠시 저렴하고 조용한 교통의 요지에 머물면서 다른 일거리를 찾아다니기 위해 60대 초반에 이주하는 경우, 그리고 ③ 특성화된 생산단지에서 특별한 기술과 경험을 발휘하여 생업에 종사하면서 지출을 아껴 저축하여 노후를 준비하려고 50대중반에 인접한 농촌으로부터 이주한 경우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주 후에 경험한 장점은 ① 대도시처럼 남들과 비교되지 않고 실속 있는 저렴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점, ② 비슷한 처지의 동년배들이 공동체를 만들어 서로 격려하며 새로운 사회관계망을 이루는 점, 그리고 ③ 특성화된 생산활동을 노년층 공동체로 관리하면서 테마와 브랜드 효과가 더욱 강해지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조사대상자 대부분 특별한 질병은 없고 비교적 건강한 상태이기에 의료관리 문제는 없으며 매우 활동적으로 다양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이주동기와 배경, 그리고 이주 후에 경험하는 생활의 장점을 연구방법에서 분류한 영역 틀에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세부적으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 1. 경제활동과 여가활동과 복지서비스

##### 1) 이혼 후 새로운 부업을 시작할

남성이 대도시에서 살면서 가족과 더불어 중소규모 사업을 운영하였으나 50대초에 이혼을 하면서 집과 사업체를 처분하여 분할하고 혼자 살게 되어, 저렴한 비용으로 작은 주거공간에서 생활하면서 새로운 노동시장을 찾기 위해, 농촌주변이라 모든 것이 저렴하고 파트타임 일자리도 많은 가까운 소도시 외곽지역 도로변 목조건물 오두막을 선택하는 사례가 나타났다. 즉, 이혼과 재산처분이라는 주요 사건이 발생하여 불안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경제활동 가능성이 있고 생활비가 저렴한 곳으로 이동하려는 계획이 중요한 동기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사 례 1> 아내와 함께 터onto 쇼핑몰에서 과일주스 가게를 운영하다가 이혼을 하게 되면서 위자료도 주고 재산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보상하다보니 가게를 처분하여 더 이상 일할 기회가 사라졌다. 일할 곳이 없으니 대도



시에서 생활하는 것이 집세나 물가가 매우 비싸기에 부득이싼 곳으로 옮겨야 했다. 그렇다고 아무도 없는 시골 농가에 있을 수는 없고 그날그날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닥치는 대로 일할 수 있고 생활비 지출이 아주 적은 곳을 찾아 도시와 농촌의 중간지점 오두막으로 왔다. 건강하고 아직 힘이 있음에 감사할 뿐이다(50대초 Trenton시 오두막 단지로 이주한 50대말 남성 구술내용 재정리).

## 2) 특성화된 생산단지에서의 전문적인 사업과 다양한 여가활동

본 연구에서의 현지답사 결과, 오두막이나 RV-Park는 외진 곳에서 살면서 느끼는 무료함과 고립감을 최소화 하고 다양한 생산활동과 여가를 통한 활력을 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대부분 테마 관광지나 특화된 생산단지 인근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곳에 이주한 사람들 중에는 가정문제나 경제력 약화 같은 불가피한 이유가 아니라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는 적극적인 계획에 따라 이사 온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자신의 오랜 경험과 기술을 활용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특성화 구역, 예를 들어 치즈, 포도주, 과일잼, 향식료, 高價 양념(preservatives), 벌꿀제품, 쿠키 및 초콜릿, 단풍나무 수액 가공품(maple syrup) 등을 백여 년간 만들고 팔아온 명가(名家: Heritage) 생산단지가 밀집된 호숫가 옛마을 인근 RV Park에 이주하는 경우가 그 예다. 캐나다 경우, 온타리오 호수 길(Trail)을 따라 이어지는 전통식품 제조 단지는 지역특산물을 주제(Theme)로 한 집합생산단지이며 지방정부에서 지원하는 위원회(Associates)와 협의체(Councils)로 유지되는 특성화 식품단지(Taste Trail) 경영조직이다<sup>4)</sup> 이러한 테마 생산구역은 생산과 가공 외에도 노년층 정서활동과 여가를 충족시키고 방문객과 더불어 즐기는 다양한 이벤트가 있다.<sup>5)</sup> 종교 활동, 문화예술 활동, 사교클럽, 축제, 거리행진 등 다양한 이벤트가 지역사회 기관과 주민들의 협조로 보장되며 풍물시장, 중고 생활용품 베틀시장(flea market), 농부시장(farmers' market), 화랑, 유기농산물 노점상단지 등 노년층이 즐기는 다양한 이벤트와 생활용품 실비구매 기회 및 사교와 여가활동이 제공된다.

이러한 생활은 여러 도시를 오가며 다양한 부업을 하는 불규칙한 생활과는 달리, 농촌과 연계하여 생산활동을 하고 대도시에서 오는 방문객들을 주 고객으로 하는 사업을 하고 이벤트에도 참여하면서, 나름대로 전통 명가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유명테마 브랜드(Theme Brand)를 이어가는 자부심을 갖고 사는 장점을 지닌 것으로 나타난다. 즉, 대도시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진 노년층 중심의 유명제품 단지에 기여하면서 그 인접한 이동주택에서 산다는 것은, 노후에도 매우 가치 있는 일에 몰두하면서 그 밖의 생활은 매우 실속 있고 저렴하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사례 2> 호숫가를 따라 목장과 포도밭이 많은데 여기에서 포도를 주제로 한 가공품(포도주, 주스, 잼, 사탕, 차 등)을 만들어 전통 가업으로 이으려고 이곳에 사업체를 인수하였다. 원래 포도농장을 하였으나 이제는 뭔가 새로운 사업으로 성공하고 싶다 (50대 초반에 Wellington on the Lake에 이사 온 50대 후반 부부 남편 진술내용 요약정리)

<사례 3> 내가 만약 Toronto에 살면서 포도주 가게를 한다면, 난 값비싼 드레스, 화장품, 그리고 높은 집세를 내는 낭비를 하면서도 결국은 술가게 주인일 뿐이다. 이곳은 비록 오두막에 살면서 텃밭을 가꾸지만 일과시간은 나만의 독특한 브랜드를 가꾸고 이 지역 특성을 살린 여가활동도 즐기는 가치 있는 삶이다(50대 초반에 Wellington on the Lake에 이사 온 50대 후반 부부 부인 진술내용 요약정리).

## 3) 파산후 복지기관의 도움으로 부부가 함께 일할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함

자녀들이 독립한 후 부부가 함께 파트타임 일을 하며 매우 화목한 생활을 하였으나 연령증가와 더불어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소득이 감소하여 주택 모기지(mortgage)를 감당하지 못해 살던 집이 압류되면서, 당장 대도시에서 새로 아파트 세를 낼 능력은 전혀 안되기에 주거비용이 매우 저렴하고 특히 오렌지 농장과 노인촌락에서 시간제 노동 일자리가 보장된 오두막 단지로 50대 후반 부부가 함께 이주해온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 경우, 55세이상 고령 노동자로 분류되고 가압류 처분이라는 사건을 접하면서, 지역사회 복지센터의 상담을 통해 오렌지 농장과 노인촌락에서 일당 받고 일하는 기회가 많은 인접 오두막 단지로 이주한 것이다. 이러한 경우 복지기관과 공조하여 어려운 상황에 처한 고령자에게 우선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후원단체(예: 오렌지 농장 회사, 은퇴자 휴양단지 등)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면서, 자신이 살아온 대도시에서 자신의 취향과는 전혀 상관없는 매우 먼 곳으로 이주하여 새로운 환경에서의 생활을 시작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유층이 밀집한 휴양단지에 인접한 소규모 주거공간에서 생활한다는 점이 고려되어 보호 대상으로 인식되어 종교기관과 봉사단체와의 유대를 통해 사회적 지지기반이 형성되어 어느 정도 소득이 보장되는 안정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4) 온타리오 포도주 생산단지 인터넷 포털사이트

[www.winesofontario.ca](http://www.winesofontario.ca)

[www.wineriesofniagaraonthelake.com](http://www.wineriesofniagaraonthelake.com) 를 근거로 요약함

5) 나이아가라 시 상공회의소(Chamber of Commerce) 홈페이지 자료에 근거함. <http://www.niagaraonthelake.com/>

<사 례 4> 맛벌이로 열심히 일했지만 나이 먹으면서 힘들어서 일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면서 대도시 생활을 감당할 수가 없었다. 집 모기지(mortgage)가 밀려 압류되고 거리로 나 앓을 판이 되어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센터를 방문해 고령자 취업 알선 상담을 하고 그 복지기관에 일손 구하는 광고를 낸 후원기관이 있는 곳을 찾아 이사가야 하는 기구한 신세가 되었다.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우리 부부를 받아줄 곳을 찾아 멀리 이사를 하여 노인 휴양단지나 골프장이나 오픈지 농장에서 그때그때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휴양단지 귀퉁이에 있는 오두막 단지로 이사 왔다.(50대 후반에 Sun City 은퇴휴양지 내 오두막 단지로 이사 온 후 3년 동안 생활 한 부부중 남편 구술내용 재정리)

<사 례 5> 골프장과 부유층 노인촌락 가운데 오두막에서 산다는 것이 나름대로 큰 효과를 발휘한다. 교회나 노인촌락 노인들 봉사모임에서 찾아와 옷이나 생활용품도 도와주고 파티에 초대도 해주고 일거리도 주어 우선 먹고 살기에 편하고 외롭지 않아 좋다.(50대 후반에 Sun City 은퇴휴양지 내 오두막 단지로 이사 온 후 3년 동안 생활 한 부부중 부인 구술내용 재정리)

## 2. 농촌을 떠나 최소비용으로 경제활동과 생활편익 추구

농촌지역에서 농업과 관련된 생활을 하면서 살아온 중류층 사람들은 중년기 이후 신체능력이 저하되면서 농업에만 전념할 수 없으며 해오던 일을 줄이고 도시에 나가 부업활동을 해야 할 상황을 경험하게 된다. 예를 들어 소규모 과수원도 소유하고 접목이나 껌 등 타 농장 일도 하면서 살아오다가 작업능력이 저하되어 일당으로 일하던 이웃 농장에서의 일거리가 감소하게 되자, 여름에만 일하는 과수원 영농 외 다른 부업을 찾아 도시를 자주 왕복해야 할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즉, 살아온 농촌에서 멀지 않은 곳에 저렴한 비용으로 생활하면서 도시 정원관리나 조경사업 등 일용직에도 나가 부업을 하고 쇼핑, 근린시설 이용, 문화활동 등 도시생활의 편익을 누리기 위해서는 소도시 외곽 저렴한 목조주택이 적합하여 그곳으로 이동하게 된 것이다. 캘리포니아주 Weed시 경우, 인구가 3천명 정도에 불과하고 특별히 활성화된 산업이나 관광명소도 아니기에 부업기회는 적지만 일단 그곳에 거주하게 되면 차량으로 1-2 시간 이내에 인근 대도시 3-4곳을 왕래할 수 있다는 점이 노년기에 접어드는 사람들에게 큰 장점으로 작용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교통의 요지에 위치한 도시에 1950년대 목재산업이 최고조로 번창할 때 조성된 직원 숙소용 목조주택 단지와 이동가옥 혼합형 단지가 매우 저렴하여 부근 농촌지역과 도시로 자유로운 왕래를 원하던 연소노년층 사람들에게

큰 매력요인으로 작용하게 된 것이다.

<사 례 6> 아주 작은 과수원도 있고 남의 농장 일도 도와주면서 살아온 농촌 마을을 떠나 교통이 편한 작은 도시로 왔다. 50년대에 지어 70년대까지 이용하던 제재소 숙소를 싸게 임대받아 살면서 Redding과 Shasta시를 오가며 무슨 일이든 그때그때 찾아서 하고, 그리고 Cherry 과수원은 항상 일하는 게 아니라 여름에 가끔씩 가서 일하면 되기에, 농촌과 대도시를 오가며 일도 하고 쇼핑을 비롯한 다양한 도시생활을 누리면서도 적은 비용으로 생활하는 데는 이곳이 아주 좋다. (50대 후반에 Weed시 목조 오두막단지로 이사 온 60대초 남자 구술내용 재정리)

## 3. 친지와 의 공동생활과 동행

### 1) 친한 이웃과 함께 소도시에서의 공동생활을 시작함

농촌지역에서 불규칙한 일을 하며 살아온 중류층 사람들은 전반적인 농업경기 하락과 더불어 소득원이 줄어들고 작업능력도 저하되면서 농촌에서 노후를 맞는다는 사실에 불안을 느끼기 시작하였다. 특별히 소유한 토지도 없고 농촌지역 작은 마을 주택에 세 들어 살며 여러 농장을 전전하며 다양한 일당 작업을 하며 살아오다가, 나이가 들면서 작업능력이 저하되고 전반적인 농업경기 하락과 함께 일거리가 줄어들자 특별히 농촌에 남아있어야 하는 이유가 사라지게 되었다. 그런 상황에서 비슷한 처지에 놓인 이웃들과 함께 소도시 이동주택 공원으로 이사하여 이웃들과 모여 작은 공동체를 만들어 도시에서의 청소, 건물관리, 도로공사 등 다양한 일자리를 찾아다니며 최소 비용으로 생활하는데, 2~3 가구가 팀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group project)를 찾기도 하는 등 공동생활로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 례 7> 어차피 농촌에서도 내 땅 없이 남의 일 도우며 살았다. 그런데 점점 나이 들면서 일이 느려지고 게다가 농촌경제가 나빠지면서 노후 생활고가 걱정되기 시작했다. 그렇다고 낯선 곳에 홀로 갈수는 없고 그래서 친한 이웃과 함께 가까운 곳에 있는 트레일러(trailer) 공원으로 이사하여 서로 마주보며 산다. 그리고 건물 페인트칠이나 정원수 관리 등 몇몇이 어울려 팀으로 일할수도 있기에 희망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 (50대 후반에 Trenton시 인근 RV Park로 이사온 60대초 남자 구술내용 재정리)

### 2) 검소한 생활을 하며 새로운 지인을 사귀어 서로 격려하며 동행함

그리고 대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농촌지역 외곽으로 이사 와서 불규칙하지만 다양한 형태의 부업활동을 통해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면서, 남과 비교되지 않는 자유로운 상태에서 매우 검소한 생활을 하면서도 비슷한 처지의 또래집단들이 새로이 생겨나 서로 이해하고 격려해 주며 필요할 때 동행하면서 마음의 평화를 누리는 것도 큰 장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례 8>** 무엇보다도 이웃이나 길거리 다니는 사람들 눈치 안보고 내 생활에 필요한 것 실속 있고 싸게 구입하여 검소하게 살아가면서 예전에 살아온 걸치레 삶을 청산한 것에 감사한다. 옷이든 그릇이든 벼룩시장에 가서 1달러에 사서 쓴들 누가 뭐라 하는가? 함께 사는 비슷한 노년층 몇몇이 어우러져 살다보니 서로를 다 이해하기에 남 의식하지 않고 마음이 풍요로운 해방감을 맛보는 것이 큰 장점이다. (50대초 Trenton시 오두막 단지로 이주한 50대말 남성 구술내용 재정리)

## V. 부정적 기능

앞서 고찰한 바와 같이 농촌지역 부근 소도시 외곽에 위치한 소형 주거단지는 지역사회에서 경험할 수 있는 보편타당한 사회적 특성이 매우 결여되고 특별한 목적을 위해 주거비용과 문화욕구를 최소화 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구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후생활을 더욱 안정되게 하는 장점도 많고, 또한 그러한 격리된 곳에서 노후를 보내면서 경험하는 단절된 생활 등 많은 부정적 기능도 나타나고 있다. 부정적 기능으로는, 우선은 오두막이나 RV-Park가 학령기 아동을 가진 세대가 거주하기에는 매우 부적절하여 노년층이 주류를 이루면서 인간이 자연스럽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사회적 다양성과 활력이 크게 결여되고 노년층 위주의 특성을 고려한 사회적 배려가 오히려 그들의 정서와 일상생활 관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55세이상 고령 사람들이 밀집하여 시간이 흐르면서 지역 평균연령이 크게 증가하는 특수성 때문에 요양원이나 재활서비스 사업장이 증가하고 여가관련 사업장이 위축되어 노인복지서비스 측면에서 볼 때 생산적인 독립생활 노후에 필요한 복지시설과 서비스는 결여되고 의존적 노년층 위주의 불균형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점이 우려되고 있다. 또한 활력적인 여가활동 기회와 가족과의 교류도 점차 감소하고 있는 바, 그러한 진술 내용에 대해 앞서 제시된 주요 영역을 근거로 구체적인 사례를 고찰하고자 한다.

### 1. 복지시설 및 서비스 이용의 불균형

#### 1) 노인관련 시설 유입으로 인한 사회적 통합 결여

노인밀집구역이 형성되는 것은 노년기 정서나 건강관리, 정서적 안정, 그리고 노년기 특유의 기술과 경험을 활용할

수익사업 기대라는 많은 장점이 있긴 하지만, 노인관련 시설들 중 특정분야가 지나치게 편중되게 밀집되면서 점진적으로 역기능이 발생하는 단점도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조사된 지역은 젊은 층보다는 중년층과 노년층 위주로 구성되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노인인구비율이 높아져 결국은 노인보호구역으로 설정되었고, 그러한 보호구역의 장점을 활용하려는 요양시설, 재활시설, 주간보호소, 심지어 장의사 등 초고령 노인들 위주의 사업장이 부근에 유입되면서 외부방문객도 감소하고 지역의 활력이 저하되고, 더욱이 특성화된 생산단지로서의 브랜드효과는 감소하고 요양보호 적합지로서의 이미지가 더욱 부각되면서 전반적인 사회적 다양성과 통합성이 크게 위축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활기찬 노년을 보내기 위해 이주하는 사람 뿐 아니라 요양시설에 있기 위해 이주해 오는 경우도 늘어나 노인인구 증가가 가속화되어 활력을 불어 넣어 줄 다양한 사회계층 구성이 결핍되어 복지서비스의 중요한 기능인 사회적 통합기회가 점점 희박해 지는 것이다.

**<사례 9>** 여기는 예전에는 목재산업도시였으나 이젠 요양산업도시로 변모하는 중이다. 요양시설이 하나 둘 생기고 있던 사람들마저 노인이 되어가니 주변에서 누가 아프거나 죽는 일이 자주 일어나는데 모두들 이웃이니 외면할 수가 없어 찾아다니면서 우울한 일들을 자주 접한다. 그런 일들을 점점 더 자주 접하면서 여기 온 것을 후회하는 노인들을 볼 때가 많다. 이벤트나 활동은 여름에만 집중되고 나머지 계절은 우울한 일들을 접하면서 위축된 나날이 지속된다. (Weed시 목조주택단지 Marketing Director 진술내용 요약정리)

**<사례 10>** 원래는 과일을 소재로 한 유명 브랜드 지역이라서 비록 오두막에 살면서도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자부심과 희망을 갖고 살 수 있었다. 그러나 부근에 대규모 은퇴휴양시설이 들어서면서 이제 이곳은 은퇴휴양지가 되어 가는 기분이다. 고객 중에 날 보러 온 게 아니라 휴양시설 구경하러 오는 김에 지나다가 구경삼아 들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 지역이 그런 곳으로 다 바뀔까봐 걱정이 되기도 한다. (50대 후반에 Trenton시 RV Park로 이사 와서 과일 특산물 생산 및 판매를 해온 60대초 남자 구술내용 재정리)

### 2) 토지소유자들의 태도변화

소형 주거시설이 위치한 곳은 인구밀도가 낮은 외곽지역이지만 행정구역상 市에 해당하고 고속도로에 인접하기 때문에 토지소유자들은 재개발이나 地價상승등 투자가능성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갖는다. 그런데 노인인구가 집중되어 노인보호 구역으로 설정되어 요양시설이나 휴양시설도 인접하면서, 토

지소유자들은 수익성이 낮은 오두막이나 RV-Park가 들어선 토지가 부유층 노인들이 거주하는 고급 유료시설로 변하기를 기대하게 된다. 그러한 점은 이 지역에서 생활하는 노인들이나 관리직원에게도 커다란 심리적 압력으로 인식되어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작용하는 부작용을 낳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오두막이나 RV-Park가 들어선 토지의 소유자들이 장기적인 관리계획보다는 요양시설이나 타운하우스 유치에 더욱 큰 관심을 보여 주변 환경개선이나 복지서비스를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하고 부동산 개발회사와의 교류에 치중하면서 조경이나 여가설비 보수, 입주자 생활관리가 위축되면서 입주자들도 어느 한 순간 삶의 터전이 다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직면하는 바, 그 사례를 다음과 같이 인용하고자 한다.

<사례 11> 땅주인은 이 부근에 부유층 노인을 위한 고급 타운하우스나 노인주거시설을 유치하려고 하다가 협상이 잘 안되면 매우 못마땅해 한다. 그리고 이곳에 대한 설비투자나 조경에는 관심이 점점 줄어들고 언제든 이곳을 없애려고 한다. 그런 느낌을 받을 때마다 이런 오두막 단지에 사는 사람이나 관리인은 늘 불안하다. (Wellington on the Lake RV-Park 관리인 진술 재정리)

<사례 12> 이곳에 정이 들고 단지에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도 다정한 이웃인데, 땅 세를 내고 있는 처지이고 땅 주인이 언제든 다른 주거시설로 재개발 하면 우리는 하루아침에 보금자리를 잃는다. 땅주인이 휴양시설 유치를 위해 투자자문회사들과 이곳을 둘러보고 다니는 모습을 볼 때마다 불안한 마음 금할 길 없다. (Trenton시 자원 봉사자 진술내용 요약정리)

## 2. 겨울철 여기활동 위축과 가족 및 지인으로부터의 소외

### 1) 간혀있다는 생각에 도시생활을 동경함

소형 주거단지는 전원적인 환경과 생산단지 조성, 그리고 노인보호구역에 준하는 사회적 배려 등으로 인하여 활력적인 일과 다양한 이벤트나 여가활동을 통해 정서적 안정도 찾고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탈피하는 등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지만, 교류하는 사람이 제한되어 있고 단조로운 생활이 타 지역에 비해 많아 무기력감에 사로잡히고 서서히 재기의욕이 사라지면서 다시 대도시에서의 과거생활을 동경하는 등 우울한 정서에 사로잡히는 단점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우울한 정서는 추운 계절에 가중되는데, 축제나 예술행사와 같은 이벤트도 전혀 없고 생산단지 방문객, 특히 단체 방문이 크게 줄어들어, 과거 대도시에서 즐기던 문화생활 및 친교활동과 너무나도 큰 격차가 있는 곳에서 생활한다는 사실을 실감하면서 고립되고 간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 례 13> 처음에는 이혼하면서 누적되었던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새로 일하면서 평화롭게 살아간다는 사실이 좋았다. 그러나 몇 년이 흐르다 보니 이제 이리다 이곳에서 아무도 모르는 이 호숫가 오두막에서 사라진다는 생각에 두려운 마음이 든다. 아직은 건강하지만 새로 여자 친구를 사귄 기회도 없고 항상 단조로운 일을 하면서 예전의 대도시 생활을 동경하지만 갈수 없다는 생각에 숨이 막힌다. 여름에는 사람들도 많고 일도 바빠 그런데로 즐겁게 지내지만 겨울에는 하루 종일 신세타령만 하게 된다. (50대초 Trenton 오두막 단지로 이주한 50대말 남성 구술내용 재정리)

<사 례 14> 이곳은 겨울은 그야말로 잠자는 마을이다. 원예프로그램이나 외출이나 모든 활동이 겨울에는 아주 드물어지기에, 우울해 하고 대도시를 동경하는 분들을 보면 매우 안타깝다. (Paradise 오두막 단지 관리인 구술내용 재정리)

### 2) 가족과 지인들로부터 잊혀진다는 두려움

파산하여 집이 처분되면서 대도시 생활을 청산하고 새로운 곳으로 이사하여 복지기관의 도움으로 고령자 취업 지원 혜택을 받고 저렴한 주거비용과 생활비로 부부가 함께 생활하게 된 것은, 분명 재정파탄 스트레스에서 해방되고 정서안정과 더불어 일하며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한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본인이 전혀 계획하지 않았던 먼 곳으로의 주거지 이동을 하고 난 후 세월이 흘러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자녀의 방문이 힘들어 지고 과거에 알던 지인들과의 교류도 희박해 지면서 이제까지 살아온 사회적 지지 기반이 다 무너지고 고립되고 잊혀진다는 불안감이 누적되는 불편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심리적 불안은 활동이 크게 줄어들고 차량왕래가 힘들어 지는 겨울철에 더욱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 례 15> 처음 이곳 오두막에 이사 왔을 때는 부부가 함께 일하면서 편안한 생활을 하게 된 기쁨을 누렸다. 하지만 복지기관에 의존하는 신세라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먼 곳으로 남이 알선해 주는 대로 이사 와서 몇 년 지내는 동안 가족과 만나는 일도 없고 친구들과도 전화만 오갈 뿐 서로 만나보기가 매우 힘들어 졌다. 특히나 겨울에는 차도 잘 안다니고 누가 오거나 내가 어디 갈 일도 적고 밖에 나가 즐겁게 보낼 일도 없어 이 작은 오두막에 간혀 있게 되면서 난 이제 가족, 친척, 친구들로부터 잊혀진다고 생각하면 매우 우울해진다. (50대 후반에 Sun City 은퇴휴양지 내 오두막 단지로 이사 온 후 3년 동안 생활 한 부부 구술내용 재정리)

## VI. 논의 및 제언

### 1. 요약 및 차별화 방안

본 연구에서는 미국과 캐나다의 소도시 인근 저비용 소형 주거단지에 거주하는 연소노년층의 구체적인 이주동기와 배경, 그리고 현지생활의 장단점을 고찰하였다. 도시와 농촌의 교량적 위치에 최소비용으로 생활할 수 있는 오두막이나 이동주택 등은 중년기에서 노년기로 넘어가는 시기에 적합한 새로운 라이프스타일 개발이라는 목표를 갖고 이주하는 사람들의 목표 지향적 장소이기도 하지만, 사회적 통합이 희박해지고 고립감을 느끼게 되는 역기능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이주동기와 생활의 장점은 생활비를 크게 절약하고 복지혜택을 받으며 새로운 경제활동을 추구하며 새로운 지인들과의 교류를 통해 활력적인 초기노년생활을 보내는 것이며, 취약점은 시간이 흐르면서 고령인구가 밀집되면서 다양한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여가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고 가족과의 교류가 감소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우리나라 현실에 그대로 반영하기에는 몇 가지 측면에서 제한점이 따르기에 미국 및 캐나다와 한국현실의 차이점을 고려한 차별화 방안이 필요하다. 우선 미국과 캐나다는 1970년대부터 세금납부액을 근거로 한 노후 소득보장 제도가 마련되고 자녀와 독립하여 노후 생활을 하는 규범이 잘 정착됨은 물론, RV park나 모빌홈과 같은 대안적 소형 주거공간이 다양하게 개발되어 50대부터 이주나 생활방식 변경이 매우 자유롭고 적극적인 반면(AARP, 2006; CARP, 2008), 한국은 노후 소득보장 수준이 낮고 자녀와 교류하며 살려는 욕구는 강하고 거주지 변경을 실제 행동에 옮기는 것은 다소 소극적이라는 근본적인 차이점(이인수, 2007)이 고려되어야 한다. 더욱이 농촌생활문화는 친족들과 인접하여 살면서 정서적인 교류를 주고받으며 영농관리와 제사를 함께 영위하는 씨족공동체 유교문화성격이 강하기에 살아온 농촌마을을 떠나 새로운 장소에서의 삶을 개척하는 것이 정서안정에 위배되며(현외성, 2006), 노후 소득보장여건을 볼 때 농촌생활을 청산하고 소도시로 이주하여 새로운 생활방식을 시작하는 것 또한 대다수 노인들에게 과중한 부담으로 작용한다(신동원, 2006; 현외성, 2006). 그렇기에 아직은 농촌거주민들 대다수는 생활환경이 크게 개선되기를 열망하면서도 도시화된 지역으로 이주하는 것을 고려하기 보다는 경로당 활성화사업이나 재가복지서비스 확충을 크게 기대하는 편이다(보건복지가족부, 2009).

하지만 중·노년층 일부는 조건이 허락한다면 소도시로 이주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욕구도 있기에 이러한 일부분에 대한 대안으로서 본 연구결과를 반영할 필요성은 강하게 대두된다. 한국 중·노년층 일부는 자녀와 가까운 곳에 생활하

거나 다양한 부업활동, 그리고 활력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면 재산을 처분하고 가까운 소도시로 이주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경향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충남 중소도시와 면지역에서 조사된 55~70세 사람들 중 2/3는 다른 곳으로의 이주를 희망하였는데 그 중 31.5%는 자녀와 가까운 곳을 희망하고 25.4%는 소도시 외곽에 쾌적하고 안전한 전원형 은퇴자마을이 들어서면 이주하여 살고 싶다고 응답하였으며(신동원, 2006), 또다른 연구에서 농촌지역 60세이상 노인들중 25%는 인근 소도시로 이주하여 상업이나 임시근로직으로 생활하면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기위해 재산이 처분되기를 열망하고 있었다(조승만, 2008).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아직은 자발적인 계획이 확립되지 못하고 자녀와 인접하거나 경제활동기회나 노년층 주거단지가 조성될 경우에 고려해 본다는 조건이 수반된 소극적 성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 노인들의 이주를 배려한 특화된 구역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복지정책과 지자체 지원으로 노인들이 이주할만한 동기와 조건이 우선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과 캐나다 경우 소도시 외곽은 겨울철에 교통장애와 활동위축으로 인해 타지역과의 교류기회나 방문객과 더불어 즐기는 이벤트가 크게 줄어들어 입주자의 사기가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한국 역시 정도차이는 있겠으나 여름과 겨울의 현저한 활동의 차이는 필연적인 결과일 것이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조성될 소도시 외곽 주거단지 등에 인근 도시지역 종합사회복지관이 주도하여 재가복지, 혹은 노인교실을 담당하는 전문가들이 주기적으로 파견되어 다양한 서비스 및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차량탐색 이동목욕서비스, 이미용 서비스, 그리고 방문 한방치료교실(평화종합사회복지관, 2005) 등을 복지기관에서 겨울철에 주기적으로 제공하도록 권장하는 지자체 복지관리정책이 마련되고 또한 겨울방학을 이용한 청소년 특별방문 사회봉사 프로그램 등이 집중적으로 기획되어 이러한 지역에 제공되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자녀의 교육과 결혼을 지원하며 오랫동안 함께 살아오면서 자녀에 대한 정서적 의존도가 높은 한국노인의 특수성을 감안해 볼 때(장인협·최성재, 2004), 자녀나 손·자녀가 연소노년층 주거단지에 가급적 자주 방문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일정기간 함께 생활하게 함으로써, 이곳에서의 생활이 일반가정에 보다 유사한 정서적 환경으로 근접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특히 사회적 접촉이 크게 떨어지는 겨울방학기간 동안 초·중·고 학생들이 체류하며 조부모와 정서교류를 할 수 있는 세대간 공유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동방문 복지기관에 보급하는 관리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 2. 한국형 모델개발을 위한 제언

이제까지 고찰한 미국과 캐나다의 사례, 그리고 한국의 제한적 상황을 토대로, 도시와 농촌의 노년층이 함께 공존하는 한국형 저비용 소형 주거단지 개발을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표 2> 참조).

### 1) 都農 통합 소도시 외곽의 공동작업장과 소형주거단지 竝設

미국과 캐나다의 사례, 그리고 한국의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가장 보편적인 이주동기로서, 문화생활과 자녀와의 교류를 위해 농촌재산을 처분하고 이주하거나 혹은 대도시에서의 고비용 생활을 청산하고 소도시로 이주하여 다양한 부업활동을 주요 목표로 하는 중·노년층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계층을 위해 가장 먼저 추진되어야 할 방안은 도시-농촌 통합형 도시외곽에 고품자 적합 공동작업장을 유치하고 그러한 공동작업장에 이동식 소형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도농 통합형 도시(강동진, 1999; 박재홍·이상대, 2000)는 군청소재지 중심에 있는 읍을 중심으로 산업설비와 문화시설 및 조정 확충을 통해 인근 輿地 주민의 유입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는 바, 이러한 방안은 영농에만 전념해오다 노년기에 접어든 연령층에게는 이주할 경제적 여력이나 생활적용 가능성이 고려되지 않았고, 또한 농촌과 도시의 조화를 이루는 완충기능이 없어 대도시에서 전원생활로의 변화를 기대하며 이주하고자 하는 연소노년층에게는 전원생활의 기회도 없고 도시생활의 연장이라는 점에서 목적기능이 결여된 단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그동안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都農 통합도시 계획에 있어, 본 연구에서 고찰된 소도시 외곽지역의 소규모 주거단지를 추가하여 보완하는 정책적 방안이 추진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수정방안으로서, 최근 농촌에서 도시로 승격한 도농통합형 소도시 경우, 읍지역에 인접한 면과 리에 신흥 근린구역을 조성하여 새로운 주거단지를 유도하고 대도시나 농촌에서 이주하는 연소노년층의 기술과 자본력을 활용하여 공동작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 등을 구상해 볼 수 있다. 특히 이러한 곳에서의 주요 활동목표는 공동작업을 통한 경제활동, 그리고 저비용으로 생활하며 다양한 생활편익을 추구하는 것인 만큼, 소규모 농가공 작업장과 소형 주거공간이 병설되어 공존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작업지도요원과 복지전문가가 방문하여 공동체 노인들간 자원과 능력을 공유하고 취사와 주거환경관리를 공동으로 하도록 계도하여, 자발적 주도능력이 적은 한국 고령자에게 보다 안정된 정서에서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에 전념하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 2) 관광명소와 전문 생산단지에 인접한 이동주택단지 조성 관광특구나 특성화된 생산단지로 이주하여 전문적인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캐나다 사례를 반영하는 방안으로서, 한국에서도 관광명소와 전문 농공생산단지에 인접한 이동주택단지 조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은 아직 선진국에 비해 농촌의 문화생활여건이 매우 미약하기에 농어촌이나 중소도시 외곽에 노년층을 위한 별도의 소형 주거공간을 대규모로 자유롭게 조성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농촌이나 소도시 외곽 중에서도 관광명소나 특성화된 생산단지 등 이미 다양한 사회교류 여건이 구비된 지역을 중심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연소노년층이 생활할 수 있는 오두막이나 이동주택 등의 단지를 조성하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노인인구가 많고 노인들이 직접 참여하여 명맥을 잇는 전통문화가 강한 농어촌 마을을 중심으로 휴식공원(예: recreational park, natural park, memorial park), 여가용 차량 생활 공원(RV Park: Recreational Vehicle Park), 관광명소(tourism attractions) 등등 다양한 휴양관련 시설이 함께 들어서도록 조정하는 정책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도, 시, 군, 면 등 지자체가 기업체와 협조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프로젝트 형식으로 관광 및 노인주거단지 특구가 지역개발의 프로젝트로 추진되어, 다양한 계층 사람들이 교류하는 사회적 지원망 구축과 더불어 관광산업과 노인생활 공동체가 함께 활성화되도록 하는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 3) 소형 공동주택중심의 은퇴자마을 조성

미국과 캐나다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저비용 소규모 주거단지는 농촌출신과 도시출신 노년층이 새로운 교류를 하며 동행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장점을 한국에 반영하는 방안으로서 우선은 현재 한국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와 연계되어 실현가능한 초보적 단계부터 시범사업을 개발하여 점진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에 정부 주도하에 시도되는 은퇴자마을 조성사업은 대도시로부터의 귀농정착 이주에 의한 농촌인구유입과 경제활성화를 추구하는 개발계획이라는 대전제 하에(농림부, 2006; 농림수산식품부, 2009), 다음과 같은 정책적 지원이 추진되어 왔다. 즉, 첫째로는 농촌지역에 오랫동안 살아온 연소노년층이 타지역으로부터 귀농 정착한 또래 연령층과 연대하여 대도시 기관과 자매결연을 통한 농산물 집단 유통망을 구성하는 등 그 지역 생활양식과 자립능력을 토대로 도시인과의 유대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 시니어클럽 등에서 주선하고, 둘째로는 농촌생활 적응 도움 등 상호교류를 통한 정서증진을 도모하는 것이다(농촌공사, 2006). 그러나 이러한 은퇴자마을 조성사업은 사회적 지원망이 크게 결여된 輿地로 20가구 정도의 도시출신 연소노년층 이주를 유도하여 전원주택이나 빌라형 주거단지만을 조성하며 지역 건설업 활성화에만 다소 기여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문화활동과 소득창출의 기회가 적어 호응이 저조한 상태며, 특히 대도시에서

<표 2> 한국의 연소노년층을 위한 저비용 소형 주거단지의 개발방안

제안된 모델	주요이주동기 및 대상자	핵심과제
都農 통합 소도시 외곽의 공동작업장과 소형주거단지 병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국과 캐나다의 사례, 그리고 한국의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가장 보편적인 이주동기</li> <li>문화생활과 자녀와의 교류를 위해 농촌재산을 처분하고 이주한 집단</li> <li>대도시에서의 고비용 생활을 청산하고 이주하여 다양한 부업활동을 주요 목표로 하는 집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근 농촌에서 도시로 승격한 도농통합형 소도시 경우, 읍지역에 인접한 면과 리에 신흥 근린구역을 조성하여 새로운 주거단지를 유도</li> <li>대도시나 농촌에서 이주하는 연소노년층의 기술과 자본력을 활용하여 공동작업 프로그램 운영</li> <li>소규모 농가공 작업장과 소형 주거공간이 공존</li> <li>작업지요원과 복지전문가가 방문하여 공동체 노인들간 자원과 능력을 공유하고 취사와 주거환경관리를 공동으로 하도록 계도</li> <li>자발적 주도능력이 적은 한국 고령자에게 보다 안정된 정서에서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에 전념하도록 지원</li> </ul>
관광명소와 전문 생산단지에 인접한 이동주택단지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광특구나 특성화된 생산단지로 이주하여 전문적인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는 적극적인 집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도시 외곽 중에서도 관광명소나 특성화된 생산단지 등 이미 다양한 사회교류 여건이 구비된 지역을 중심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연소노년층이 생활할 수 있는 오두막이나 이동주택등의 단지를 조성</li> <li>지자체가 기업체와 협조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프로젝트 형식으로 관광 및 노인주거단지 특구가 지역개발의 프로젝트로 추진</li> <li>다양한 계층 사람들이 교류하는 사회적 지원망 구축과 더불어 관광산업과 노인생활공동체가 함께 활성화되도록 하는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시도</li> </ul>
소형 공동주택중심의 은퇴자마을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촌출신과 도시출신 노년층이 새로운 교류를 하며 동행하는 계기를 만들기를 원하는 집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촌지역에 오랫동안 살아온 연소노년층이 타지역으로부터 귀농 정착한 또래 연령층과 연대하여 대도시 기관과 자매결연을 통한 농산물 집단 유통망을 구성</li> <li>지역 생활양식과 자립능력을 토대로 도시인과의 유대 강화</li> <li>도시와 농촌 노인이 함께 모여 공동으로 개발하는 소형주택 중심 은퇴자마을조성</li> <li>개발의지가 적은 한국 중·노년층을 계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특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시범마을을 조성하여 장단점을 보완하면서 단계적으로 확대</li> <li>소규모 그룹홈이나 복지주택, 공동작업장, 농업생산단지 등을 균형 있게 유지하고 요양시설은 인접하지 않도록 조정하여 활력적인 사회적 분위기가 유지</li> </ul>
여가시설내 공익형 고령근로자 공동주택단지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사회 복지센터의 지원과 시간제 부업활동기회를 제공받고 새로운 사회관계망을 형성하려는 저소득 취약 집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골프클러스터(Golf Cluster)나 생태공원, 체험학습장 등 대규모 여가시설에서 시간제로 일할 공익형 고령근로자를 지자체에서 파견</li> <li>고령 근로자들의 소형 공동주택을 여가시설에서 조성하는 공조방안 구성</li> <li>수익사업과 복지가 공존하는 새로운 패러다임</li> <li>파견 근로자들이 공동생활 할 저비용 소형 주거공간은 여가시설 분위기에 어울리는 소형 오두막이나 이동식 여가차량으로 조성</li> <li>임대료는 공공근로 임금중 일부로 충당</li> <li>저소득층 고령자들은 복지수혜를 받으며 방문객들과의 사회적 접촉을 통한 다양한 활동을 경험</li> </ul>
금융회사가 관리하는 소도시인접형 임대주택단지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도시에 거주하다가 사업실패나 이혼 등 중요 사건을 계기로 집과 사업체를 처분한 뒤 저렴한 비용으로 생활하면서 농촌과 도시를 오가며 새로운 노동시장을 찾기 위해 소도시 외곽지역으로 이주하는 집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금융회사가 주도하며 지역사회 건설사 및 복지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소도시 외곽에 저비용 임대주택단지를 조성</li> <li>도시지역에 설치가 불가능한 오두막이나 여가차량 보다는 소형 아파트나 연립주택을 개조하여 소형화하여 저렴하게 임대</li> <li>1가구 1세대는 물론 2·3세대 공동생활 공간으로도 재구성</li> <li>잔여자산을 역저당(reverse mortgage)으로 전환하고 그 역저당 가치를 현금보다는 금융회사가 담보한 또다른 주거공간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하여 대여</li> <li>유휴 노인복지주택을 최소형으로 개조하거나 1가구에 다세대를 입주시켜 그룹홈으로 변경하면서 50대후반 이주자들에게 임대</li> <li>임대주택 입주와 동시에 다양한 부업활동이 제공되도록 지역사회 복지기관이 고령자 부업알선 상담 등의 복지서비스를 제공</li> </ul>

이주한 사람들에게 저렴한 주거공간을 제공한다는 것 외에는 농촌노인들에 대한 배려가 적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농촌공사, 2006). 앞으로는 대형 주택건설을 전제로 한 은퇴자마을 조성에서 탈피하여 오두막이나 소형 공동주택 등 도시와 농촌 노인이 함께 모여 공동으로 개발하는 소형주택 중심 은퇴자마을조성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주거 공간

구성 역시 자발적인 개발의지가 적은 한국 중·노년층을 계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특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시범마을을 조성하여 장단점을 보완하면서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소규모 그룹홈이나 복지주택, 공동작업장, 농업생산단지 등을 균형 있게 유지하고 요양시설은 인접하지 않도록 조정하여, 활력적인 사회적 분위기가 일관되게 유지되는 생활구역으로

발전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4) 여가시설내 공익형 고령근로자 공동주택단지 조성

미국 플로리다 주 오렌지 농장과 노인촌락에 인접한 오두막 단지로 이주한 50대 후반 부부가 지역사회 복지센터의 지원과 시간제 부업활동기회를 제공받고 새로운 사회관계망을 형성한 사례를 한국에 반영하는 방안으로서, 현재 한국 농촌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골프클러스터(Golf Cluster)나 생태공원, 체험학습장 등 대규모 여가시설에서 시간제로 일할 공익형 고령근로자를 지자체에서 파견하고 그 고령 근로자들의 소형 공동주택을 여가시설에서 조성하는 공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골프클러스터는 농촌 산악지역에 소형 골프장이 여러 개 군집하도록 하고 그곳에서 시간제로 일할 인근 농촌 고령근로자들의 생활공간도 조성하는 이른바 수익사업과 복지가 공존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현재 전남과 제주지역에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고창군, 2008). 골프클러스터는 골프장 운영 외에도 수영장, 스키장, 운동기구 전문 쇼핑센터 등 대도시로부터 많은 소비자를 유입하는 레저 관련 사업장으로 개발되고 있다. 또한 생태공원과 청소년 체험 학습장 등 대규모 여가시설 역시 시설의 사회화(이병록, 2005)라는 기조아래 지역사회 고령인력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시설내 문화시설의 공유를 지향하고 있다. 공익형 고령근로자는 동과 단단위 지자체에서 노동능력이 있는 55세이상 근로자 중에서 생태공원관리나 환경보존 등 전문적 지식과 도덕성이 필요한 직종에 적합한 사람을 선발하여 교육시킨 후 필요한 곳에 파견하는 공공근로사업으로서(보건복지부, 2006), 골프클러스터나 생태공원 등 여가시설내에 거주하면서 부대시설 및 수목을 관리하고 방문객을 안내하는 고령자들을 파견하는 방안을 구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파견 근로자들이 공동생활 할 저비용 소형 주거공간은 여가시설 분위기에 어울리는 소형 오두막이나 이동식 여가차량으로 조성하고 그 임대료는 공공근로 임금중 일부로 충당한다면, 이곳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고령자들은 복지수혜를 받으며 방문객들과의 사회적 접촉을 통한 다양한 활동을 경험하는 장점을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

#### 5) 금융회사가 관리하는 소도시인접형 임대주택단지 조성

대도시에 거주하다가 사업실패나 이혼 등 중요 사건을 계기로 집과 사업체를 처분한 뒤 저렴한 비용으로 생활하면서 농촌과 도시를 오가며 새로운 노동시장을 찾기 위해 소도시 외곽지역 옛 목조주택단지로 이주하여 활력적인 삶을 개척한 미국 사례를 한국에 반영하는 방안으로서, 금융회사가 주도하며 지역사회 건설사 및 복지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소도시 외곽에 저비용 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구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임대주택단지는 한국의 여건상 도시지역에 설치가 불가능한 오두막이나 여가차량 보다는 소형 아파트나 연립주택

을 개조하여 소형화하여 저렴하게 임대하는 것으로, 1가구 1세대는 물론 2-3세대 공동생활 공간으로도 재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도시에 소유했던 점포나 사업장, 주택 등을 채권이 설정된 금융회사가 처분하게 될 경우, 잔여자산을 역저당(reverse mortgage)으로 전환하고 그 역저당 가치를 현금보다는 금융회사가 담보한 또다른 주거공간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하여 대여하는 방식을 택한다면 금융회사도 현금지불 부담이 적어 역저당이 더욱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건축물로는 소도시 외곽지역에 대규모로 건설되었으나 노인구매자 부족으로 분양이 중지된 유휴 유료노인복지주택(대한노인회, 2009)을 고려해 볼 수 있다. 2005년 이후 건설경기 촉진정책에 따라 농촌지역에 인접한 소도시 외곽에 대량으로 건설된 10평형대 유료노인복지주택 대부분이 65세이상 노인만을 입소대상으로 정하였다가 분양이 저조하여 방치된 사례가 많이 보고되고 있고 이러한 방치된 노인복지주택의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과제까지 공모되는 등(보건복지가족부, 2009) 미분양 노인복지주택의 리모델링이나 입소기준 변경가능성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유휴 노인복지주택을 최소형으로 개조하거나 1가구에 다세대를 입주시켜 그룹홈으로 변경하면서 50대후반 이주자들에게 임대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임대주택 입주와 동시에 다양한 부업활동이 제공되도록 지역사회 복지기관이 고령자 부업알선 상담 등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금융회사와 복지기관과의 공조를 통한 효과적인 경제관리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강동진(1999). 도농통합시의 도시경관 관리대상 추출 : 경북 경산시 사례연구. **한국전통조경학회지**, 17(4), 87-106.
- 고창군(2008). 고창 골프클러스터 조성계획에 관한 미간행 내부 보고자료.
- 김희우(2000). 도시공원의 질적인 개선방안. **호남대학교 논문집 Vol.21, No.2**
- 노동연구원(2002). 고령화시대의 노동시장 정책.
- 농림부(2006). 은퇴자마을 조성사업 및 전사회 관련 실무자 2006년도 춘계 워크샵 자료집.
- 농림수산식품부(2009). 인터넷 홈페이지 농촌정책분야 자료 [http://www.mifaff.go.kr/USR/WPGE0201/m\\_231/DTL.jsp](http://www.mifaff.go.kr/USR/WPGE0201/m_231/DTL.jsp)
- 농촌공사(2006). 전원마을 페스티벌 인터넷 홈페이지 자료 검색. [www.seniortown.org](http://www.seniortown.org)
- 대한노인회(2009). 월간 회보 노년시대 2009년 4월호 사설 <노인 복지주택 대수술 받는다>
- 박영범(2002). 중고령자 노동시장. 노동연구원.



- 박재홍·이상대(2000). 도농통합도시의 계획수립 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지**, 12(1), 155-164.
- 보건복지부(2005). 노인보건복지 국고보조사업 안내.
- 보건복지부(2006). 인터넷 홈페이지 노인복지시설 관련 자료 검색. <http://www.mohw.go.kr/>
- 보건복지가족부(2009). 인터넷 홈페이지 정책마당 분야 자료 <http://www.mhw.go.kr/front/main.jsp>
- 신동원(2006). 농촌형 노인생활시설에 대한 수요자 조사에 관한 연구. 한서대학교 정보산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양순미·홍숙자(2003). 농촌노인의 독거·동거 가구형태가 심리적 고독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6), 129-139.
- 양순미(2004). 농촌노인의 사회역할 모델과 사업화방안 개발 연구. **한국노인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자료집**, 2-16.
- 양순미·임춘식·오윤자(2007). 농촌노인의 우울에 관련변인이 미치는 효과. **노인복지연구**, 36권, 139-158.
- 윤순덕·채혜선(2008). 농촌노인의 사회적 老老돌봄의 문제점에 대한 사례연구. **노인복지연구**, 40권, 31-54
- 윤종선(1994). 우리나라 노인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병록(2005). 노인복지시설 입지조건에 따른 지역사회 관계의 차이. **노인복지연구**, 30권, 53-73.
- 이인수·김인중(1998). 탑골공원 방문노인의 활동양상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5권, 195-220.
- 이인수(2007). 21세기 실버타운의 전망. 대왕사.
- 이인수(2009). 21세기 노인복지론. 대왕사.
- 이찬영(2007). 지역노인주거시설의 설립과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한서대 정보산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장인협·최성재(2004). 노인복지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 전창미·박희진(2004). 노인의 특성에 따른 환경친화적 노인단지 주거계획 요소. **노인복지연구**, 26권, 215-235.
- 조승만(2008). 농촌지역 재가노인의 경제상황과 노후생활 계획. 내포지역문화연구소 '2009 연구보고발표회 자료집
- 조추용(2005). 유료노인주거복지 산업의 현재와 미래. **한국노인복지학회 2005 추계학술대회 발표 자료집**, 5-28.
- 통계청(2006). 인터넷 홈페이지 가족 및 인구동태자료 검색. <http://www.nso.go.kr/>
- 평화종합사회복지관(2005). 전북 담수물예정지역 노인복지프로그램 개발용역 연구보고서.
- 한경혜(2002). 미국의 농촌노인을 위한 지역사회보호 지원프로그램.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13(2), 77-86.
- 현외성(2006). 경남 남해안 농어촌지역 실버타운 개발모형 연구-경남 고성군 지역 실버타운 수요조사를 중심으로- **한국노인복지학회지**, 『노인복지연구』, 33권, 301-332.
- AARP(2006). American Association of Retired Persons. Bimonthly Periodicals Series 2006.
- AARP(2006). American Association of Retired Persons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aarp.org/>
- Alpert, L. & Gatty R. (1969). Product Positioning by Behavioral Life-Style, *Journal of Marketing*, April, 123-124.
- Atchley, R.(1988). *Social Forces in Later Life*.Wadsworth Publishing Co.CA,U.S.A.
- Burkhauser, RV., Butrica, BA., and Wasylenko MJ(1995). Mobility patterns of older homeowners: Are older homeowners trapped in distressed neighborhoods? *Research on Aging*. 17:363-384.
- CARP(2008). Canadian Association of Retired Persons 인터넷 홈페이지 [www.carp.ca](http://www.carp.ca)
- Canadian Association of Retired Persons(2008). Monthly Newsletter of Series 2008, Edition of Ontario State.
- Chevan, A(1995). Holding on and letting go: Residential mobility during widowhood. *Research on Aging*. 17(3):278-302.
- Elder Home Finders(2009). 미국 노인주거 서비스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자료. <http://www.elderhomefinders.com/living/senior-living-facility.html>
- Florida Senior Zone Association(2008). 노인보호 서비스 연합회 인터넷 홈페이지 노인보호규정 자료. <http://www.wtsp.com/news/local/story.aspx?story-id=32755>
- Lawton MP.(1982) *Competence, environmental press, and the adaptation of older people*. In: Lawton MP, Windley PG, Byerts TO, editors. *Aging and the environment: Vol. 7, Theoretical approaches*. 1st ed. Springer; N.Y.: pp. 33-59.
- Oak-Knoll Retirement Village(2006). Guides for Residence Life in Oak-Knoll, Paradise, CA.
- Ontario Association of Active Adult Life Style Retirement Community(2006). Guides for Retirement Life for Future Residents.
- Pynoos, J.. and Regnier, V. (2000). *Housing the Aged*, London; Elsevier Press.
- Rokeach, M.(1973). *The Nature of Human Values*. N.W.: Free Press.
- Sergeant, J. and Ekerdt, E.(2008). Motives for Residential Mobility in Later Life. *International J. of Human Development*. 66(2), 131-154.
- Senior Outlook(2008). Life After 55. 미국 55세이상 고령자 정보센터 정기간행물 인터넷 홈페이지 자료. <http://www.senioroutlook.com/ordermagazine.asp>
- Senior Resource(2006). 캐나다 노인정보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안내자료.

<http://www.seniorresource.com/ageinpl.htm#place>

Suncity Center(2005). 미국 플로리다 州 통합형 노인생활시설  
단지 Suncity Center 인터넷 홈페이지 자료

[http://suncitycenter.com/index\\_files/TheCommunity.htm](http://suncitycenter.com/index_files/TheCommunity.htm)

Weed City Chamber of Commerce(2007).미국 캘리포니아 州  
Weed시 상공회의소 인터넷 홈페이지 안내자료.

<http://weedchamber.com/visit/activities.php>

Wells, W. D. & Tiger, D. J. (1971). Activities, Interests &  
Opinions, *Journal of Advertising Research*, 11(August),  
27-35.

- 접수 일 : 2009년 04월 12일
- 심사 일 : 2009년 06월 01일
- 심사완료일 : 2009년 07월 28일